

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

경제주평

Weekly Economic Review

-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

목 차

■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Executive Summary | i |
| 1. 對 중국 수출 감소 지속 | 1 |
| 2.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 | 2 |
| 3. 평가 및 시사점 | 8 |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 괄 : 이 부 형 이 사 대 우 (2072-6306, Leebuh@hri.co.kr)

중 국 경 제 팀 :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

■ 對 중국 수출 감소 지속
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대외 수요부족, 국내 산업재편,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,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의 對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■ 對 중국 수출구조의 특징

첫째, 對 중국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우리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. 對 중국 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2000년 68.1억 달러에서 2015년 729.4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동기간 36.9%에서 53.2%로 증가하였다. 더욱이, 중국의 10대 품목 총수입 중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2000년 8.7%(50.8억 달러)에서 2015년에는 22.1%(1,028억 달러)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. **둘째, 對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부품·부분품 중심으로 확대 추세이나, 소재 수출은 비중이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.** 對 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對 중국 수출의 74.6%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. 그러나 최근 중국이 가공무역 수입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 전체무역에서 중간재 수입비중이 2000년 64.4%에서 2014년 49.8%로 감소하였다. 한편, 한국은 소재·부품 부문 중 부품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전자·통신기기 품목 중심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소재 분야는 감소하고 있다. **셋째, 최종재 수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.** 2010년 이후부터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재의 비중이 하락추세를 보이고, 소비재의 비중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. 특히, 우리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7.3% 증가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전년대비 8.2% 감소하는 등 對 중국 자본재 수출이 지속 약화되고 있다. **넷째,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.**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액은 2000년 36.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59.9억 달러로 확대되었고, 비중도 6.2%에서 38.8%로 급증하였다. 그러나 2014년 기준, 전체 전문·과학장비 수출에서 對 중국 수출비중은 61.1%(178.4억 달러), 전기전자 제품은 41.8%(252.2억 달러), 통신장비는 22.2%(80.9억 달러)로 나타나는 등 중국에 대한 일부제품의 수출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

다섯째, 對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,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對 한국 수입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. 우리의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118.8%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전년대비 9.6% 감소하였다. 한편, 2004~2014년 사이,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현지매입 비중은 38.6%에서 63.9%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,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46.5%에서 26.1%로 감소하였다. 이는 우리의 對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이 2000년 34.9%에서 2015년 -5.6%로 급감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.

■ 평가 및 시사점

(평가) 우리의 對 중국 수출 구조는 부품 등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, 최종재 수출 감소,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급증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. 최근까지 가공무역을 통한 부품 위주의 對 중국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며, 자본재 등 최종재의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더욱이 고위기술 제품의 對 중국 수출이 전문·과학장비, 전기전자 제품 등 특정 부문에 편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,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등 對 중국 수출의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된다.

<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평가 >

| 구 분 | 평 가 | 위 협 요 인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상위 10대 품목 수출 | 對 중국 수출의존도 지속 상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 지속 •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간재 자급률 향상 • 고위기술 제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 약화 • 중국 현지 제품의 원가경쟁력 향상 등 |
| 중간재 수출 | 부품·부분품 위주의 수출 지속 | |
| 최종재 수출 | 자본재 수출 감소, 소비재 수출 정체 | |
| 고위기술 제품 수출 | 전자·통신 등 제품에 편중 심화 | |
| 투자 연계형 수출 | 우리기업들의 현지조달 급증 | |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(시사점) 최근 對 중국 수출이 약화되는 가운데, 향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 첫째,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부가·고기술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꾀하는 등 對 중국 수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. 둘째, 화장품, 미용제품, 의약품 등 최종 소비재 부문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. 셋째, 단순 제품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.

1. 對 중국 수출 감소 지속

○ 최근 중국 수입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의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속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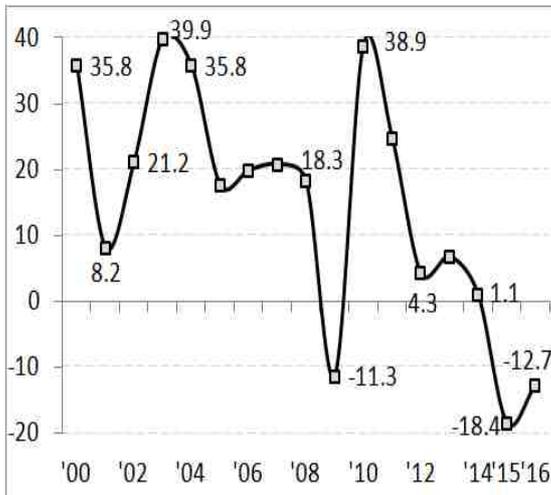
-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중국은 대외 수요부족, 국내 산업재편,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원인으로 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
 - 중국 수입증가율은 2000년 35.8%, 2010년 38.9%에서 2015년에는 18.4% 감소, 2016년 1/4분기에는 12.7% 감소로 나타남

- 더욱이 對 중국 수출증가율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對 중국 수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 지속

-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015년 기준 26.0%, 2016년 1/4분기 기준 24.7%로 2000년 10.7%의 2배 이상 증가
- 더욱이,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이나, 중국 수입증가율 하락으로 對 중국 수출증가율도 동반 하락하는 등 수출구조의 리스크가 확대 되는 양상을 보임

○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중국 수입증가율 추이 >
(증가율,%)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주 : 2016년은 3월까지 누적기준임.

< 한국의 對 중국 교역 추이 >
(증가율,%) (억 달러)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주 : 2016년은 3월까지 누적기준임.

2. 對 중국 수출구조의 특징

① 對 중국 상위 수출품목 비중 확대 지속

○ 對 중국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지속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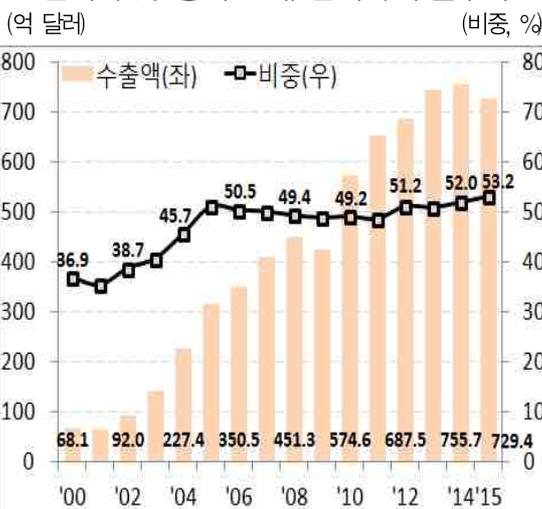
- 對 중국 10대 품목¹⁾ 수출은 전체 對 중국 수출의 50% 이상을 상회하는 등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

- 우리나라의 對 중국 10대 품목의 수출은 2000년 68.1억 달러에서 2015년 729.4억 달러로 증가
-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품목 비중도 동기간 36.9%에서 53.2%로 증가

- 한편, 중국의 10대 수입품목²⁾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이 차지하는 점유율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임

- 중국의 10대 품목 총수입 중에서 한국제품의 비중은 2000년 8.7%(50.8억 달러)에서 2015년에는 22.1%(1,028억 달러)로 증가

< 한국의 對 중국 10대 품목의 수출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HRI 계산.
주 : HS코드 4단위 기준임.

< 중국 10대 수입품목 중 한국 점유율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HRI 계산.
주 : HS코드 4단위 기준임.

- 1) 對 중국 수출 10대 품목은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며, 주로 석유, 첨단 화학소재, 전자집적회로, 휴대폰 등을 포함함.
- 2) 중국의 10대 수입 품목은 연도별로 다소 상이하나, 주로 석유, 반도체디바이스, 인쇄회로, 휴대폰 등을 포함함.

② 부품 등 위주의 중간재 수출만 확대

○ 중국의 중간재 수입비중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, 對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부품·부분품 중심으로 확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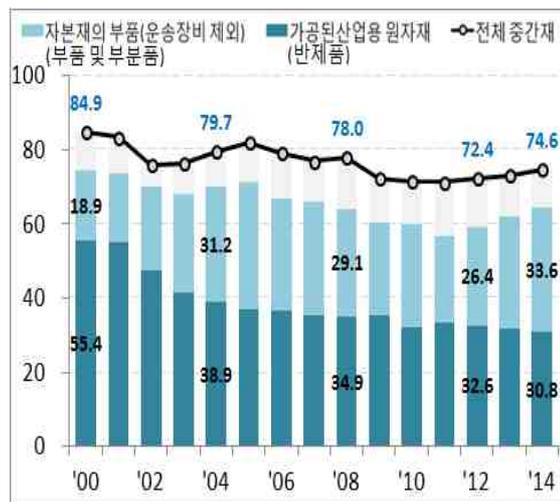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가공무역 수입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간재 수입비중이 지속 감소
 - 중국 전체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~2015년 사이 41.1%에서 26.6%로 급격히 감소
 - 중간재 수입비중도 2000년 64.4%에서 2014년 49.8%로 감소
- 그러나 부품, 반제품 등 중간재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높음
 - 한국의 對 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체 對 중국 수출의 74.6%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
 - 특히, 부품·부분품 중에서도 자본재의 부품(운송장비 제외)³⁾ 수출비중은 2000~2014년 사이 18.9%에서 33.6%로 14.9%p 증가
 - 금속제품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⁴⁾의 수출비중은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對 중국 수출의 30% 이상을 차지

< 중국 가공무역수입 및 중간재수입 비중 >
(비중, %)

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주 1.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.
2. 가공무역 분류는 【별첨 2】 참고.

< 한국의 對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 >
(비중, %)



자료 : 海關總署,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주 : 전체 對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.

3) 【별첨 1】에서 생산공정별 BEC 코드 42에 해당.
4) 【별첨 1】에서 생산공정별 BEC 코드 22에 해당.

○ 한편, 對 중국 부품 수출은 전자·통신기기 제품 등 위주의 수출 편중 양상이 지속되는 반면, 소재는 對 중국 수출 점유율이 지속 감소

- 對 중국 부품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, 특정 품목 편중이 지속됨

- 한국의 對 중국 부품 수출은 2000년 41억 달러에서 2015년 753억 달러로 약 20배 가까이 증가
- 특히, 2015년 현재, 부품 수출 중 전자·통신기기 부품, 전기기계 부품이 각각 62.7%, 14.4%로 전체의 70%를 상회하는 등 편중 양상이 지속

- 반면, 소재 부문은 중국의 소재 수입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낮음

- 2015년 기준 중국의 전체 소재 수입 1,375.7억 달러 중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.3%(196.6억 달러)로, 2000년 23.1%보다 8.8%p 감소
- 한편, 일본의 비중은 2015년 16.5%(227.5억 달러)로, 한국의 비중보다 2.2%p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, 중국의 소재 수입에서 일본제품 비중은 2006년 22.5%로 한국 19.8%를 추월한 후 현재까지 한국을 지속 상회

< 한국의 對 중국 부품 수출 추이 >

(억 달러) (비중,%)



자료 : 소재부품망 자료로 HRI 계산.
주 : 비중은 전체 對 중국 부품수출 대비 해당 품목 비중을 의미.

< 중국 소재 수입 시장內 한·일 점유율 >

(단위 : 억 달러, 비중%)

| 구분 | 중국 소재 총수입 | 對 한국 수입 | 對 일본 수입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'00년 | 393.0 | 90.8 (23.1) | 88.2 (22.4) |
| '02년 | 463.1 | 93.6 (20.2) | 97.9 (21.1) |
| '04년 | 723.1 | 162.5 (22.5) | 151.3 (20.9) |
| '06년 | 826.7 | 163.6 (19.8) | 185.8 (22.5) |
| '08년 | 1,099.8 | 209.2 (19.0) | 231.8 (21.1) |
| '10년 | 1,324.6 | 216.8 (16.4) | 284.4 (21.5) |
| '12년 | 1,511.3 | 228.7 (15.1) | 294.1 (19.5) |
| '15년 | 1,375.7 | 196.6 (14.3) | 227.5 (16.5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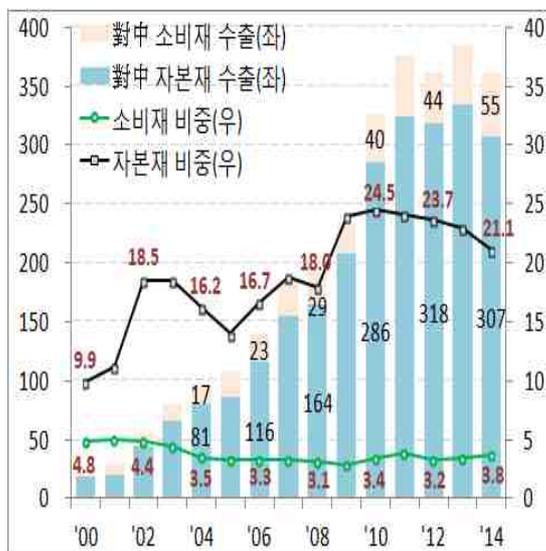
자료 : 소재부품망 자료로 HRI 계산.
주 : ()는 중국의 소재 총수입 대비 해당 국가 비중을 의미.

③ 최종재 수출 정체 지속

○ 對 중국 최종재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

- 최근 對 중국 최종재(자본재+소비재) 수출 확대가 지연
 - 우리나라의 對 중국 최종재 수출액은 2000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362억 달러로 증가
 - 그러나, 2010년 이후부터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재의 비중이 하락추세를 보일뿐 아니라, 소비재의 비중도 정체가 지속
- 더욱이, 전체 자본재 수출 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
 - 우리의 전체 자본재 수출은 2014년 기준 1,332억 달러인데, 이 중 對 중국 수출은 23.1%인 307억 달러에 달하는 등 전체 자본재 수출에서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증가 추세
 - 그러나,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2010년 37.3% 증가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에는 전년대비 8.2% 하락

< 한국의 對 중국 최종재 수출 추이 >
(억 달러) (비중,%)

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주 : 전체 對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.

< 한국의 자본재 수출 추이 >
(증가율,%) (비중,%)

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
④ 고위기술 품목 수출 편중 심화

○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자·통신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

-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고위기술 제품에 대한 對 중국 수출액은 2000년 36.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559.9억 달러로 증가
 - 이는 전체 對 중국 수출 대비 비중이 6.2%에서 38.8%로 급속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함
- 다만, 전기·전자, 전문·과학장비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편중이 심화
 - 2014년 기준, 우리나라 전체 전문·과학장비 수출에서 對 중국 수출비중은 61.1%(178.4억 달러)를 기록
 - 동기준 전기·전자 제품은 41.8%(252.2억 달러), 통신장비는 22.2%(80.9억 달러)로 나타나는 등 일부품목의 對 중국 수출 집중도가 지속 상승
 - 한편, 우리의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對 중국 수출비중은 8.5%(1.5억 달러)에 그침

< 한국의 對 중국 고위기술 제품 수출 >
(억 달러) (비중,%)



< 對 중국 주요 고위기술 품목 수출 >
(단위 : 억 달러, 비중 %)

| 구분 | 전문 과학장비 | 전기·전자 | 통신장비 | 의약품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2000 | 0.4 (6.0) | 19.8 (7.7) | 6.4 (6.1) | 0.1 (4.1) |
| 2004 | 23.0 (58.8) | 44.3 (17.3) | 46.5 (14.9) | 0.2 (5.2) |
| 2008 | 109.0 (44.2) | 79.8 (25.5) | 78.9 (18.8) | 0.6 (6.0) |
| 2012 | 208.4 (67.2) | 176.7 (34.9) | 51.7 (17.6) | 1.3 (8.5) |
| 2014 | 178.4 (61.1) | 252.2 (41.8) | 80.9 (22.2) | 1.5 (8.5) |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주 1. 한국 전체 고위기술제품 수출 중에서 對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.
2. 고위기술제품 분류기준은 【별첨 3】참고.

자료 : UN Comtrade 자료로 HRI 계산.
주 : ()는 한국의 품목별 수출액 대비 對 중국 품목별 수출 비중을 의미함.

⑤ 투자연계형 수출 감소

○ 최근 對 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,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감소

- 최근 對 중국 투자 증가율이 지속 하락

- 對 중국 직접투자 증가율은 2000년 118.8%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전년대비 9.6% 감소
- 동기간 對 중국 수출증가율도 34.9%에서 -5.6%로 감소하는 등 중국에 대한 투자 연계형 수출구조 형태를 보임

- 한편, 중국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현지매입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감소

- 2004~2014년 사이,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현지매입 비중은 38.6%에서 63.9%로 두 배 가까이 증가
- 반면, 국내기업의 對 한국 수입 비중은 46.5%에서 26.1%로 감소하면서 현지 조달이 심화

< 한국의 對 중국 투자·수출 증가율 >
(증가율,%)

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무역협회.

< 국내기업 중국법인의 현지매입 비중 >
(비중,%)



자료 : 해외직접투자경영분석 각 년도(한국수출입은행).

주 : 조사대상 분야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제조업, 광업, 도·소매업 기준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(평가) 우리의 對 중국 수출 구조는 부품 등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, 최종재 수출 감소,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증가 등 구조적 취약성을 보임
 - 최근까지 가공무역을 통한 부품의 對 중국 수출이 지속되고 있으며, 자본재 등 최종재의 수출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수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나타남
 - 우리의 對 중국 수출품은 주로 중국 현지 가공무역을 통한 부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
 - 반면, 자동차, 가전, 휴대폰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 현지의 생산·유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소비재의 對 중국 수출이 정체 양상을 보임
 - 한편, 기계, 장비 등 자본재의 경우, 중국 자체의 제품기술력 향상 등으로 인한 자급률 상승으로 對 중국 자본재 수출 수요 감소 우려
 - 더욱이 고위기술 제품의 對 중국 수출이 특정 부문에 편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,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조달 비중도 빠르게 증가
 - 고위기술 제품의 對 중국 수출이 전문·과학장비, 전기·전자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 양상을 보임
 - 더욱이 향후 중국 제품의 기술력, 원가 등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경우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현지조달 비중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< 한국의 對 중국 수출구조 평가 >

| 구 분 | 평 가 | 위 험 요 인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상위 10대 품목 수출 | 對 중국 수출의존도 지속 상승 | · 중국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 지속 · 중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간재 자급률 향상 |
| 중간재 수출 | 부품·부분품 위주의 수출 지속 | |
| 최종재 수출 | 자본재 수출 감소, 소비재 수출 정체 | · 고위기술 제품에 대한 중국의 대외의존도 약화 · 중국 현지 제품의 원가경쟁력 향상 등 |
| 고위기술 제품 수출 | 전자·통신 등 제품에 편향 | |
| 투자 연계형 수출 | 우리기업들의 현지조달 급증 | |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.

- (시사점) 최근 對 중국 수출이 약화되는 가운데, 향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 패러다임 전환 등 새로운 전략적 방안 마련이 필요
 - 첫째, 우리나라 소재·부품 산업의 고기술·고부가가치화를 통해 對 중국 수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
 -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, 중국 현지에서 향후 중간재 수요가 빠르게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
 - 특히, 중국이 최근 가공무역 억제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(의약, 제제, 화학섬유 등), 1차 금속(합철금, 가공비철금속 등) 등 소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
 - 또한, 범용 중간재보다는 고부가·고기술 중간재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 유지가 필요
 - 중장기적으로는 對 중국 수출구조의 고도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가치사슬 재구성을 통해 원가 경쟁력 제고 모색
 - 둘째, 최종 소비재 부문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이자 한·중 FTA 관세철폐 효과가 큰 분야이므로 효과적인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
 - 중국은 기존에 소비재의 수입관세가 높은 편이었으나 한·중 FTA에서 이 분야 관세의 대폭적인 철폐가 합의됨
 - 이에 따라, 화장품, 미용제품, 의약품 등 한국산 소비품의 현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금융, 유통, 시장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과 기업 간 상호 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
 - 셋째, 對 중국 상품수출 뿐 아니라, 서비스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강구
 - 단순 제품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됨
 - 한·중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 타결을 통해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

천용찬 선임연구원 (2072-6274, junius73@hri.co.kr)
 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
【별첨 1】 생산공정별 BEC 코드 분류

- 가공단계별로 분류한 세부 품목들을 UN BEC(Broad Economic Categories) 코드 기준을 따름
 - 가공단계는 3단계 기준으로 원자재, 중간재, 최종재로 구분
 - 5단계 기준으로는 원자재, 반제품, 부품부분품, 자본재, 소비재로 구분함

< 생산공정별 BEC 코드 분류기준 >

| 구 분 | | BEC | 제품명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원자재(소재, 1차산품) | | 111 | 산업용 식·음료품 |
| | | 21 | 산업용 원자재 |
| | | 31 | 연료 및 윤활유 |
| 중간재 | 반제품 | 121 |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|
| | | 22 |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|
| | | 32 | 자동차 차체,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|
| | 부품·부분품 | 42 |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|
| | | 53 | 운송장비의 부품 |
| 최종재 | 자본재 | 41 |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|
| | | 521 | 산업용 운송장비 |
| | 소비재 | 112 | 가정용 식음료 제품 |
| | | 122 |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|
| | | 51 | 승객용 자동차 |
| | | 522 |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|
| | | 61 | 내구성 소비재 |
| | | 62 | 반내구성 소비재 |
| | | 63 | 비내구성 소비재 |

자료 : Gaulier, Lemoine and Unal-Kesencii(2004), p51.

【별첨 2】 중국의 가공무역 분류기준

- 중국의 가공무역은 크게 내료가공과 진료가공, 출료가공 등으로 분류
 - 내료가공(來料加工: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ith Customer-supplied Materials) : 외국기업이 중국 가공무역기업에게 무상으로 재료를 제공하고, 중국기업이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친 후 완/반제품을 수출하여 임가공비만 수취하는 형태
 - 진료가공(進料加工: Processing Trade with Imported Materials) :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해외에서 재료를 직접 조달하여 가공 및 조립한 뒤 완/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
 - 출료가공(出料加工: Processing Trade with Expored Materials) : 중국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단계 중 일부 기술이 없어서 해외의 다른 기업에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여 완/반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방식

< 중국의 가공무역 분류기준 >

| 구 분 | | 화 물 무역 방 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일반 무역 | | 일반무역 화물 (一般貿易) |
| 가공무역 | 내료가공 | 보상무역 화물 (補償貿易) |
| | | 내료가공조립무역 화물 (來料加工裝配貿易) |
| | 진료가공 | 진료가공무역 화물 (進料加工貿易) |
| | 출료가공 | 출료가공무역 화물 (出料加工貿易) |
| 기타 무역 | | 무상지원 및 증정 화물 (國家間、國際組織无償援助和贈送的物資) |
| | | 위탁대리판매무역화물 (寄售代銷貿易), 국경소액무역화물 (邊境小額貿易) |
| | | 가공무역수입설비 (加工貿易進口設備) |
| | | 외주하청 및 노무청부 계약 수출 화물 (對外承包工程出口貨物) |
| | | 임대무역 화물 (租賃貿易) |
| | | 외자기업투자설비 화물 (外商投資企業作爲投資進口的設備、物品) |
| | | 면세외환화물 (免稅外匯商品), 면세품 (免稅品) |
| | | 보세창고출입국 화물 (保稅監管場所進出境貨物) |
| | | 보세창고보관통과 화물 (海關特殊監管區域物流貨物) |
| | | 수출가공구수입 설비 (海關特殊監管區域進口設備) |
| 역화무역 화물 (易貨貿易), 기타 화물 (其它商品貿易方式) | | |

자료 : 中國海關統計諮詢網.

【별첨 3】 고위기술 제조업 분류

< 제조업 고위기술 제품 분류기준 >

| | 품목명 | SITC코드 | 영문 이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|
| 고 위 기 술 | 무기화학 | 525 | Inorganic chemicals |
| | 의약품 | 541 | Medicin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, other than medicaments of group 542 |
| | | 542 | Medicaments (including veterinary medicaments) |
| | 전력생산장비 | 716 | Rotating electric plant, and parts thereof, n.e.s. |
| | | 718 | Power-generating machinery, and parts thereof, n.e.s. |
| | 사무용기기 | 751 | Office machines |
| | | 752 | Automatic data-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; magnetic or optical readers,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, n.e.s. |
| | | 759 | Parts and accessories (other than covers, carrying cases and the like)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machines falling within groups 751 and 752 |
| | 통신장비 | 764 | Telecommunications equipment, n.e.s., and parts, n.e.s., and accessories of apparatus falling within division 76 |
| | 전기전자장비 | 771 | Electric power machinery (other than rotating electric plant of group 716), and parts thereof |
| | | 774 | Electro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al, surgical,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, and radiological apparatus |
| | | 776 | Thermionic, cold cathode or photo-cathode valves and tubes (e.g., vacuum or vapour or gas-filled valves and tubes, mercury arc rectifying valves and tubes, cathode-ray tubes, television camera tubes); diodes, transistors and similar semiconductor devices;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; light-emitting diodes;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;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; parts thereof |
| | 우주항공 | 792 | Aircraft and associated equipment; spacecraft (including satellites)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; parts thereof |
| | 전문과학장비 | 871 | Opt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, n.e.s. |
| 874 | | Measuring, checking, analysing and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, n.e.s. | |
| 사진 및 광학 | 881 | Photographic apparatus and equipment, n.e.s. | |
| 무기 및 탄약 | 891 | Arms and ammunition | |